

2004년 성인지 교육자료

동료 성인지 도우미 훈련 Workshop

주 제 : I. 대학내 성폭력 사건 지원하기

II. 성적자기결정권과 성적자기주장



일 시 : 2004년 10월 7일(목) 오후 2시 - 6시

장 소 : 연세대학교 논지당 세미나실

연세대학교 성폭력상담실

2004년 성인지 교육자료

동료 성인지 도우미 훈련 Workshop

주 제 : I. 대학내 성폭력 사건 지원하기
II. 성적자기결정권과 성적자기주장



일 시 : 2004년 10월 7일(목) 오후 2시 - 6시

장 소 : 연세대학교 논지당 세미나실

연세대학교 성폭력상담실

Workshop

10월 10일 (목) 오후 2시 ~ 4시
 10월 10일 (목) 오후 2시 ~ 4시



10월 10일 (목) 오후 2시 ~ 4시
 10월 10일 (목) 오후 2시 ~ 4시

10월 10일 (목) 오후 2시 ~ 4시

교내 성폭력상담실에서는 남녀 재학생들의 성관련 고민과 성폭력·성희롱·성차별적 문제들을 동료입장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학생 여러분의 성인지 능력향상을 위해 동료 성인지도우미 훈련 워크샵을 준비하였습니다.

동료 성인지 도우미 훈련 워크샵 일정

일 시	주 제	강 사
10.7. 14:00~16:00	I. 대학내 성폭력 사건 지원하기	김김보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학내지원팀)
10.7. 16:00~18:00	II. 성적자기결정권과 성적자기주장	김영희 (교내성폭력상담실 전문상담원)

성폭력상담실 소개

▷ 위치 : 학생회관 206호(☎2123-2118 / helper@yonsei.ac.kr)

▷ homepage : <http://www.yonsei.ac.kr/~helper/>

▷ helping service

1. 교육

- 성인지 교육
- 성폭력 · 성희롱 · 남녀차별 예방교육
- 가해자 교육

2. 상담

- 상담방법 : 방문예약 / 전화 / 이메일(helper@yonsei.ac.kr)
- 상담시간 : 월-금 9:00~17:00
- 상담내용 : 성폭력 · 성희롱 · 남녀차별 피해상담
성고민 상담

3. 사건처리

- 공식 처리 : 성폭력대책위원회 처리
- 비공식 처리 : 상담실 자체 처리(당사자간 합의 중재)

4. 의대동문과 함께하는 성건강 사이버클리닉 운영

- 이메일(cyberhelper@yonsei.ac.kr)로 진료상담

대학내 성폭력 사건 지원하기

김김보연(한국성폭력상담소 학내지원팀)

1. 원칙으로서의 피해자 중심주의¹⁾

성폭력을 공론화하려면 그 성폭력 자체를 사실로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다. 물리적, 신체적 증거는커녕 증인조차 없는 성폭력 사실은 당사자들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하여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 때 당사자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에 의존하여 구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식적·무의식적인 선택과 배제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같은 사안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기억이 다를 때 누구의 기억이 과연 '사실'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성폭력의 특수한 성격에 기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은 분명 폭력임에도 폭력임이 인지되지 못하는 매우 특수한 폭력이다. 이 범죄는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치고 피해자는 비난을 피해 자신을 감추어야 하는 해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해결 과정에서조차 계속해서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하려드는 의심의 눈초리와 자신에게 돌아오는 무수한 비난의 화살이라는 또 다른 폭력을 견뎌야 한다. 전후사정이 어찌되었건 간에 성폭력의 원인이 항상 여성의 부주의함으로 되돌려지면서 가해자의 폭력 자체가 정당화되고, 피해자는 '정조를 잃은 여성'으로 낙인찍힌 채 내부의 자책과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속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성폭력 앞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당혹감 등 피해자의 곤경에 대한 이해 역시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사실 관계 확인 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1) 본 글은 「대안원리를 고민하는 서울대 페미니스트 모임」(<http://femi-imagine.wo.to/spring001204.htm>), 「반성폭력 운동 다시읽기」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복장과 직업, 생활 방식 등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들추어 피해자의 도발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난 듯 몰아간다. 이는 성폭력 범죄가 평소 아는 남성에게 의해 이루어짐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관념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 고소가 무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편견과 함께 작용하여 두려움, 공포 등으로 인해 말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피해자들의 입을 더욱더 막는다.

또한 남성중심적 인식 구조 속에서 가해자의 피해가 피해자의 피해보다 강조되어 성폭력 자체가 은폐되고 정당화되기도 한다. 성폭력에 대한 평가와 해결은 '가해자도 피해자다', '그것은 가해자에 대한 폭력이다'식의 반발에 부딪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고 그것이 폭력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항상 그녀의 유일한 수밖에 없다. 이 관계들 속에서 피해자가 뒤편이 자신의 지위를 찾아갈 수 있기 위해 대 원칙으로서의 피해자 중심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2.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 바라보기

피해자 중심주의는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념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념 규정한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를 때 피해자의 해석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다.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 무서운 점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말을 할 때 우선적으로 남성의 말을 믿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데 있다. 물질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때 구조적인 성별 권력관계 때문에 실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입장이 확연히 다를 수 있고 이 경우 결국 발언력이 큰 남성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되기 쉽다.

그렇기에 성폭력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피해자의 기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고통이 바로 피해의 결과이자 확고한 증거이며, 이러한 고통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 자체이며, 그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폭

력 사건을 규정한다는 것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보다 강한 객관성을 지닌 해석자의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념을 규정한다는 의미는 피해자가 가해자 중심의 사회에서의 수동적이고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사건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생존자가 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3.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편견을 깨자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 사람들은 교수-제자와 같은 명백한 권력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거부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여성이 분명히 싫다고 하지 못했다면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주장은 연애 관계에서, 혹은 구매 행위가 성폭력일 수 있느냐 하는 점으로까지 나아간다. 그러나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거부 여부를 범죄 성립요건으로 보지 않는데 비해 유독 성폭력에서 이를 고수하는 것은 성폭력의 범죄성을 기각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사적인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못한 책임에 관한 논의는 거부하기가 힘든 여성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 또한 이전에는 사적인 관계, 혹은 여자라면 감수해야 하는 일에 불과하였던 문제들이 성폭력으로 공론화되기까지 거쳐왔던 힘든 과정에 대한 인식 역시 너무나도 부족하다.

당시에는 성폭력으로 뚜렷하게 인지되지 못했던 것을 후에 성폭력으로 재규정할 수 있는라는 믿음 또한 늘 제기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피해자가 사후적인 성찰,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여성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침해 행위로 재발견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물이해가 깔려있다. 성폭력의 재구성에서는 그 당시에는 판단내리기 모호했거나 무의식적으로 부정했던 기억들이 회고를 통해 점차 자각되고, 당시에는 몰랐던 상처와 모멸감의 의미가 점차 선명하게 인식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대학내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²⁾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념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사건지원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의 크게 두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지점을 함께 찾는 것 자체가 치유의 과정입니다. 사건을 지원하고자 하는 단위로부터도 피해자는 성폭력 당시의 무력감과 유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과정의 아무리 작은 부분일지라도 피해자를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진행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한 수위에 따라 같은 결과일지라도 만족도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공감하고 인정하되, 단위가 피해자의 모든 요구사항을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은 피해자를 오히려 무력감에 빠뜨릴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0. 피해자가 처음 찾아왔을 경우

* 피해자를 처음 만날 때 알아두면 좋을 점

- 1) 피해자의 감정이 어떠할 것이라고 미리 단정짓지 않도록 한다. 피해자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으며 울거나 웃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피해정도와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2) 피해자의 질문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에 적절히 대답, 반응한다.
- 3) 여성단위에서 돕고자 하는 측면을 설명하고, 제공할 수 있는 도움과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한다.
- 4) 피해상황에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기록하여 두되, 미리 양해를 구한다.
- 5) 필요한 질문과 법적, 의료적 검사와 유형을 설명하고, 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지도 설명한다.

2) 본 글은 「피해자 중심의 성폭력 사건 지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학내지원팀, 2003, 「대학내 반성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확산」,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2004 자료를 발췌, 인용하여 구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피해자가 처음 단위를 찾았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간의 신뢰쌓기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1차 관계에서 쌓은 신뢰감이 이후 사건해결과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심리적 안정의 도모

- 직접 면접시 : 오픈된 장소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며,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모든 이야기를 신뢰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3자에 의해 사건이 신고되었을 경우 : 이 경우 일단 신고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진술을 받거나 이야기를 기록해 둡니다. 피해학우에게 단위가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기 전에, 신고자를 통해 조언을 전달합니다. 또한 신고자에게 피해학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둘. 위기상황의 경우

- 산부인과등 병원진료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피해학우의 의견을 묻고 될 수 있으면 동행하도록 합니다. 진료이전 어떠한 조치와 치료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 요구사항 듣기

이는 피해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단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약속보다는 제공할 수 있는 도움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도 함께 파악해둡니다.

피해학우가 결정내리지 못할 경우, 다양한 해결방식에 대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 비밀보장

학내의 대부분이 공개회의를 하고 있어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원부터 자세한 상황까지 구성원에게 모두 공개되기도 합니다. 지원 단위내라 할지도 사건공개 범위와 수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합니다.

1. 사건신고

- 학내 성폭력 상담소로 신고하는 것은 피해자, 제 3자를 통해 가능하며 공동체에
서 사건을 알게 되면 곧바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방법은 직접방문, 전화상
담,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한데, 피해자와 상의 한 후 선택할 수 있다.

신고 후 피해 사실에 대한 상담만을 요청하는 것과 공식적인 사건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 상담소로 사건신고를 하기 전에 소속 대학의 반성폭력학칙 내용을 살펴보고
피해자와 함께 사건처리 과정을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피해자가 평소에 학
칙을 접해보지 않았다면 학칙에 대해 설명해준다.

둘, 피해자 혼자 사건신고와 조사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만일 원할 경우 대리인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주변에서 대리인을 할 수 있
는 사람이 있는지 없을 경우 그리고 활동가가 대리인이 되기를 원할 때 피해자 대
리인이 되어 전체적인 사건진행과정에서 도움을 준다.

2. 사건 접수

- 신고 된 사건 내용을 통해 학내 상담소에서 사건해결 방향을 정하게 된다. 이때
주변의 지원자와 상담실 상담원 간의 소통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떤 지원이 가능하
고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하나, 상담소에서 사건에 대한 비공개원칙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지원자인 여러분
에게 비밀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 듯 보이지만, 사건에 대한 비밀
보장은 피해자의 신분 노출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단
지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만이 비밀보장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한다.

둘, 상담원과의 면담시 처음 피해자와 만나 소통했던 내용과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
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 전달 전에 상담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
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다.

3. 피해자 상담

-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이후 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의사소통의
방법, 상담소에서 지원 가능한 것들을 알려준다.

4. 사건조사

- 사건 조사는 신고인, 피신고인, 주변인들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타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게 된다. 사건조사시 녹취나 녹화를 할 수 있고, 신고인 및 주변의 관련자들
에게는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면담을 요청한다. 면담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우편 내용증명을 통해 면담요청을 한다.

하나, 조사 전에 피해자와 같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자
신이 직접 겪은 일이라도 조사를 받을 때에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 피해자가 다시 한번 자신의 진술서와 관련자
료들을 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 사건조사를 받는 것은 상담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
되거나 불안해할 수 있다. 피해자가 동행을 원하는 지 물어보고, 원한다면 상담소에
피해자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해자와 같이 동행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는 어려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
다.

셋, 조사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

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조사 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분리조사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가해자, 피해자 면담조사 시간이 연이어 붙어있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등)

넷.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거나 부당함을 느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 그럴 때 피해자가 직접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활동가 혹은 대리인을 통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2차 피해 예방을 요청한다.

5. 조사보고서 작성

- 상담소에서 사건조사를 담당한 상담원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조사위원회 조사 자료로 사용된다.

6. 합의 및 중재

- 사건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전에 상담원이 가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하나.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 편하게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갖고, 합의를 요청한다고 해서 그것이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합의의 요구는 피해자의 권리 중 하나임을 말해준다.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를 원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둘. 합의의사가 있을 때 원하는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만약 그 요구사항에 대해 가해자가 합의하고 이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셋.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다 받아들여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요구사항 중 어떤 요구안은 꼭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해본다. 이때 우선순위란 어떤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한 합의를 못한다고 판단하고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7. 조사위원회 소집

- 조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상담원이 조사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 증거자료, 사건정황 등을 통해서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되는지 판단, 심의하게 된다. 판단을 내린 후에는 조치 및 징계수위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조사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수와 자격, 조사기간 등은 학교마다 다르다.

하나. 학칙을 통해 조사위원회 구성 비율과 자격을 확인한다.

둘. 조사위원회 구성원이 누군지 알아보고, 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본 다음, 상담소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조사위원 기피 신청을 피해자가 할 수 있다.

셋. 조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사건 조사 전에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전달하거나, 혹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나 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고려해야 할 점들을 주제로 교육시간을 기획/제안할 수 있다.(물론 어려운 일이긴 하다.)

넷. 조사위원회는 상담소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와 피해자, 가해자, 주변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섯. 조사위원회에서 면담조사가 진행될 때,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와 미리 소통한 다음, 피해자가 원할 경우 대리인과의 동행을 상담원과 이야기 나눈 다음 이를 조사위원회에 제안한다.

여섯.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질문이 주어지게 되는지를 상담원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가능한 2차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8. 결정사항 통지

- 조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신고인, 피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게 된다.

하나, 결정사항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만약 수긍할 수 없다면, 학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한다. 이의 제기 시에는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누고 정리한다.

9. 가해자 조치 및 징계

- 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 및 징계내용은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상담소 자체적으로 이행 가능한 것과 징계기관을 통해 가능한 것이 있다. 징계기관의 징계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상담소장이 징계위원회에 건의한다.

하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논의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집단의 의견서, 혹은 외부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요청하여 전달한다. 이때 피해자가 느낀 심정과 피해자가 가해자의 무엇을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인지,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어떠한 이유에서 요구되는 것인지, 사건의 징계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의사를 전달하도록 한다.

10. 2차 피해에 대한 대응

하나, 공식적인 사건지원이 종결된 후, 피해자에게 주변사람들 혹은 공동체로부터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동정론, 피해자 유발론 등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공동체 내의 세이나 제안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한다.

11. 가해자 모니터링

하나, 가해자가 징계내용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사항을 수용한 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그에 맞는 조치나 상담실에 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의논한다.

12.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

하나, 사건해결의 과정 속에서 피해자는 생각보다 더 지칠 수 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주변의 반응 속에서 지칠 수도 있다. 혹은 사건의 공식적 해결이 되었지만, 피해자 스스로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그동안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거나 피해자의 일상을 챙기기보다는 사건과 가해자 처벌 문제에 집중해 왔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건 해결 이후, 일상에 복귀할 때 혼란스러운 느낌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감정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임을 이야기하고, 피해자 스스로를 위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계획하는 시간을 갖는다.

■ 피해자의 친구인 당신을 위해서³⁾.

생각하기조차 싫은 상황이지만, 어느날 당신의 친구가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친구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친구의 고통과 분노를 함께 나누고, 친구의 치유를 위한 적절한 행동일 지에 대해 매우 어렵고 난감한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많은 경우, 친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나 말이 오히려 의도치 않게 더한 상처로 피해자인 친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의 치유를 돕고, 그 과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1. 친구를 믿어주세요.

당신을 믿고 친구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상황이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묻거나 대신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친구가 자신을 의심한다 하더라도, 친구의 기억이 모호하다 하더라도, 친구의 말들이 몹시 극단적으로 들리더라도 친구를 믿어주세요. 성폭력 피해 생존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꾸며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친구를 믿어주세요.

2.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세요.

피해자가 원할 때는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존자의 경우는 당시에는 얘기하기를 원치 않으나 치유과정을 겪으면서 지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얘기를 꺼내는 시점이 되면 얘기를 중간에 끊거나 당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투입하여 흐름을 끊는 일 없이, 다만 피해의 고통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놓아주세요. 조용히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3. 친구를 비난하지 마세요.

3) 「성폭력 근절, 남성도 편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무슨 옷을 입었든, 전에 어떤 성경험이 있든, 밤늦게 혼자 걸었든, 술에 취했든, 가해자의 집에 함께 동행했든, 그 어떤 사람도 피해를 입을 이유는 없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 온 성폭력 피해 생존자인 당신의 친구에게 그 상황을 유발하였다거나, 부주의했다거나,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등으로 피해자의 책임이라고 비난하거나 혹은 이를 암시하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어쩌면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왜곡된 편견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책임을 탓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하게 '네 탓이 아니다'고 말해주세요.

4. 친구에게 가해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문제를 보다 인간적으로 좋게 해결하기 위해라는 생각에서, 피해자인 친구에게 가해자에 대한 이해를 내비치거나,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자인 친구에게 또 다른 폭력입니다. 당신의 친구는 결코 원치 않았던 성적인 폭력으로 인해 힘들어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친구의 분노와 고통, 힘겨움을 함께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그 어떤 의도나 맥락, 현재의 심정도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덜어줄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 스스로 가해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자꾸만 생긴다면, 들어 다 보아주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가져왔던 생각들에 어떠한 오해나 편견, 잘못은 없는지, 들어 다 보아주세요. 친구의 감정과 분노에 대해서.

5. 신체적으로 다독여 주기 전에 항상 물어 봐 주세요.

몸을 다독여 주는 것이 -부드럽게 안아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편안함을 줄 거라고 추측하지 마세요.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피해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는 친한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 의한 단순한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친구가 분노나 고통, 공포를 느낄 때,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표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당신의 친구는 원치 않았던 성폭력으로, 분노하고 고통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이러한 자신의 감정으로 스스로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친구인 당신이 힘을

주세요. 그러한 감정들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그 감정들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치유될 수 있음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당신 또한 그 감정을 함께 나누고자 함을 말해주세요.

7. 친구에게 치유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친구는 자신의 치유에 대해 회의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 힘든 감정과 기억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그 일이 있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지에 대해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치유가 가능함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 치유와 극복을 위한 힘이 친구에게 있음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힘을 믿어줄 때 힘든 기억으로부터의 극복과 치유가 보다 빨리 가능해짐을 말해주세요.

8. 피해자에 대한 단일하고 고정된 상을 가지고, 친구의 감정과 태도를 바라보려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피해자를 대할 때 피해자에 대해 자신이 가져왔던 고정된 상을 통해 친구를 바라보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과 다를 때, 친구의 감정과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거나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친구는 원치 않은 피해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감정들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무한한 힘과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친구가 가진 그 힘을 믿고, 그 힘 속에서 나타나는 친구의 다양한 노력과 감정들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믿고, 지지해주세요.

9. 당신의 친구를 피해자로서만 대하려 하지 말아 주세요.

당신의 친구는 성폭력 피해자이기 전에,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의 친구를 성폭력 피해생존자라는 단일한 상을 통해서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그러한 마음은 친구에게 그대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당신의 태도와 느낌은 당신의 친구가 자신의 피해에 대한 기억과 감정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경험하게 될 특별한 감정과 고통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용기들에 지지를 보내주면서, 동시에 당신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자로서만이 아니라, 더 많은 감정과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친

구임을 느끼도록 해주세요.

10. 친구의 현재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로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매우 많지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친구가 피해의 고통과 힘겨움을 가능한 최소화시키고, 보다 빨리 극복하고 치유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를 친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선택은 친구에게 맡겨져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11. 친구가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피해자의 상황을 여러분의 욕구와 판단대로 주도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더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피해자가 가장 원하고 편안하게 여기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피해 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결코 한가지 모범답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원하고 이를 통해 치유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가해자의 친구인 당신을 위해서4)

많은 남성분들에게 친구가 가해자인 상황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너무나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들은 갑작스럽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친구에 대한 애정과 이해 그리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의 필요성 속에서 무엇이 친구를 위한 행동일지 매우 혼란스럽고 난감한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친구와 당신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서, 매우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주세요.

1. 친구를 옹호하거나 감싸지 않는 것이 친구를 배신하거나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주세요. 친구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당신이 느낄 가장 일차적인 감정과 혼란은 바로 위와 같은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친구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는지를 보기 전에, 혹은 그러한 문제와 잘못을 보더라도, 친구를 옹호하거나 감싸안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고, 그 과정을 통해 가해를 한 친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고쳐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친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여러분이 함께 지켜보고 도와줄 것이라는 일음을 주세요.

2. 자신의 행동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의지를 보일 때, 당신과 주변의 친구들이 오히려 가해자인 친구를 더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가해자들은 자신의 가해 사실을 직면해야 할 때, 주변의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로 부터 버림받거나 고립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친구에게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때, 신뢰를 지켜나가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신뢰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친구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잘못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갖는 것, 과정을 통

해 성장하는 것임을 친구에게 알려주세요.

3. "너는 사실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다."는 말로 친구를 위로하고, 기운을 주려고 하지 마주세요. 일반적으로 친구가 성폭력 가해자가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너는 사실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다"는 말로, 친구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일반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란 인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는 식의 통념을 강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자신은 소위 말해지는 강간범들과 다르며, 그에 비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죄질이 덜하다는 식의 생각을 강화시키고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피해의 심각성이란 당신과 가해자인 친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친구에게 알려주세요.

4. 친구의 행동이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당신이 판단하려 하지 마주세요.

문제의 상황에서 친구의 행동이 성폭력이었는지 아닌지를 대신 판단하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폭력의 판단 여부는 가장 중요하게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당신 친구의 행동에서 성적인 불쾌감이나 고통을 느꼈는가 여부입니다. 당신이 그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자가 되려고 하지 마주세요. 피해자가 친구의 행동을 성폭력으로 느꼈다면, 친구는 성폭력을 한 것입니다. 제 3자가 객관적일 수 있다는 말은 피해자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그 상황이 성폭력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이를 가해자인 친구에게 알려주는 것은 피해 생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5. "운이 나았다"거나, "어쩌다 실수한 거다" "잘못 걸렸다"는 말로 친구의 행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벼운 것으로 만들지 마주세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해자가 된 친구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며 친구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의 가해에 대해 문제를 지적 받게 될 경우,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누구나 그럴 수 있는 행동으로 해석하고, 주변의 이해를 받고 싶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친구들이 이를 지지하는 위와 같은 말들을 하게 될 때, 가해자인 당신의 친구들은 자신

4) 「성폭력 근절, 남성도 판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보다는 어쩌다 한 실수 정도로 잘못을 최소화시키고, 정당화해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가해 행동이 반복되거나 강화되기도 합니다.

설령, 당신이 보기에 친구의 행동이 일반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가질 수 있는 행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더라도, 친구의 행동을 위와 같은 말로 지지하지 말아주세요. 그보다는 그러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우선 주목하고, 친구와 여러분의 평소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만한 짓을 했다"거나 혹은 "피해자에게 원래 문제가 있다"는 식의 말로 친구의 책임을 덜어주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친구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에, 많은 분들이 성폭력을 한 친구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떠한 이유에서건, 원하지 않은 성적 폭력을 당해도 될만한 경우란 없습니다. 당신의 위와 같은 말은, 성폭력을 한 친구의 행동만큼이나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게 폭력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신의 그러한 말이 친구가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을 정당화하게 만들어줍니다.

7. 피해자의 심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폭력 가해자인 당신의 친구는 우선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도, 자신에게 보다 가까운 가해자의 감정과 상황에 감정을 이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의 친구가 한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피해자의 심정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친구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요. 자신의 상황보다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을 피해자의 심정을 돌아봄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보다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인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8. 피해자에게 가해자인 친구를 대신해 변명해주려 하지 마세요

가해자의 주변인들 중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 변명해주거나, 가해자의 현재심정을 전달해주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하는 중재역

할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러한 행동은, 가해자인 친구로 하여금 주변인들도 자신의 고통을 인정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사건을 인정하고 해결과정을 감수해야 하는 가해자의 위치보다는 그 일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나쁜 피해자로 스스로의 위치를 잡게 만듭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의사와 감정을 보지 못하거나 무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9. 이후 자신의 잘못들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친구를 도와주세요.

성폭력 가해자인 당신의 친구는 이번 일을 통해 이제까지 자신이 익숙하게 해왔던 생각이나 태도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거나 낮설게 바라보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이러한 감정과 상황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위로해주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덮어줌으로써 또 다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보다는 친구가 평소 여성이나 성에 대해 가져왔던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과 보다 배려있고 조화롭게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변화들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끔, 필요한 지원이나 자원들을 찾아보고 이를 제공해주려고 노력해주세요.

10. 당신도 가해자인 친구의 행동에 같이 책임질 부분이 없는지 같이 고민해보세요

친구의 행동은 어느날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평소 가져왔던 생각과 습관들 속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성폭력 가해자인 친구의 의미있는 주변인으로서 당신은, 친구의 행동이나 생각, 습관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여왔는지, 이를 지지하거나 공감하거나 부추기지는 않았는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버리지는 않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주세요. 당신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도 의미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러한 자세는 친구에게도 이제까지 특별히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성찰과 반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II. 성적자기결정권과 성적자기주장

김영희 (연세대 성폭력상담실 전문상담원)

토론주제별 Text

1. 여성/남성으로서의 나

- (1) 여성/남성으로서의 자신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인지, 여성과 남성의 특징과 역할에 대한 고정된 사고가 있다면 무엇인지 서로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 (2) 자신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단어 한 개를 써보고, 그 단어 앞에 "여성적인" 그리고 "남성적인"이라는 말을 동시에 붙여보면,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서로의 생각이나 차이점을 얘기해 봅시다. 자신이 "남자답다 / 여자답다" 라는 말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토론해 봅시다.

2. 여성/남성의 관계방식

- (1)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고유하다고 인식되는 언행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지 토론해 봅시다.

여성과 남성의 관계방식과 의사소통방식의 예
손잡고 걸어갈 때] 여&여 : 자연스럽게 친근해보임. 친한 친구들처럼 보임

남&남 : 한밤도 못 봤음. 있다해도 웬지 이상해 보임

식사시 수다] 여&여 : 사전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동원됨

남&남 : 20개 정도 낱말이면 족함(맥주 더할래 / 소금 좀 주라)

눈오는 거리 걸을때] 여&여 : 조심해, 넘어질라, 나 붙잡아

남&남 : 절루 떨어져 임마, 같이 엮어지고 싶나?

- (2) 자신에게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이성의 독특한 언행을 떠올려 보고 왜 불쾌한지 함께 얘기해 봅시다.

3. 여성/남성의 일

- (1) 전통적으로 성별분업이 뚜렷한 직업 10개를 함께 나열해보고, 최근 변화되는 상황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지 이야기해봅시다.
- (2) 자신이 생각하는 가사노동과 가사분담은 어떤 것인지 의견을 나눠 보세요.
- (3) 직업이나 미래를 선택할 때 자신의 성별이 크게 영향을 미친 적이 있는지 토론해봅시다.

[참고사례- 2003.7.22 야후 기사] -남성 70%, 맞벌이는 좋지 않지만 가사분담은 NO!
미혼남성이 맞벌이를 원하면서도 가사분담에는 아직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은 20~30대 미혼 남성 27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배우자가 결혼 후 직장생활을 계속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71.2%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맞벌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맞벌이를 희망한 남성에게 '결혼 후 아내가 직장생활을 유지한다면 가사분담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물었더니 '절반씩 분담한다'는 응답은 9.8%에 그쳤고 '여유가 있을 때 돕는다', '가사는 아내의 몫'이라는 의견이 각각 38.5%와 33.3%를 차지했다.

4. 양성평등

- (1) 우리 사회 혹은 교내의 성적 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중 그룹에서 가장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한가지 주제를 정해 토론해봅시다.
- (2) 문제 제기한 상황에 대한 양성평등적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5. 데이트성폭력

[Case Simulation]

같은 과 선후배인 A군(선배, 학교앞자취)과 B양(후배, 학교기숙사거주)은 평소 호감을 갖고 좋은 감정으로 최근 십여차례 둘만의 만남을 갖으며 가벼운 스킨십을 가져왔다. 오늘 저녁

두사람은 학교 근처에서 1-2차에 걸친 술을 마시며 즐거운 얘기와 가벼운 키스를 하였고, B양은 A군의 무릎베개를 배고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B양의 내일 치를 시험공부를 A군이 도와주기로 하여 밤 11시에 B양(기숙사여학생실내 남학생 출입불가)은 A군의 자취방에 갔다. A군이 음료수를 사러 잠시 자리를 비웠고, A군이 돌아와보니, B양은 눈을 감은 채 A군의 침대에 기대어 있었다.

- (1) 위의 상황 다음으로 전개될 수 있는 A군의 입장과 B양의 입장에서의 남녀의 심리를 묘사하여 다음상황을 전개해봅시다.
- (2) 이 상황에서 데이트 강간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입장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 (3) 이 사건이 학내 성폭력상담실에 신고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토론해 봅시다.

6. 스토킹

[Case Simulation]

A군은 2년간 사귀던 B양에게 헤어지자고 말한뒤 끈임없이 협박과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사귀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서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헤어지자고 했을 때 B양은 A군의 강의실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수시로 문자메세지로 "마지막으로 만나서 관계를 끝내자"며 일방적인 약속을 정하고 "안나오면 자살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약속장소에 나가면 "다시 잘해보자"고 애원하며 매달리고 있다. 또 B양은 A군 친구들에게 A군을 비방하는 메일을 계속 보내고 있다. A군은 B양의 가족들로부터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

- (1) 각자가 A군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토론해봅시다.
- (2) 연인관계를 끝내고자 할 때 상대방이 연인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경우 스토킹의 문제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토론해 봅시다.
- (3) 연인관계에서 두사람이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고, 상대방이 원치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연인관계를 끝내고자 할 때, 혼인빙자간음의 문제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토론해 봅시다.

7. 성희롱

[Case Simulation1]

A양은 종강모임에 참석하여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그런데 옆에 앉은 B군이 지나치게 몸을 밀착시키더니 은근슬쩍 손을 어깨에 얹고 머리카락을 만지며 이야기를 했다. A양은 몹시 불편하고 짜증스러웠으나 술자리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다. 다음 날 A양은 B군에게 전날의 일을 얘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런데 B군은 "그 때는 아무렇지 않게 가만 있다가, 이제 와서 불쾌했다는 게 말이 되나?" 면서 옆에 있는 C군에게 의견을 묻는다.

- (1) 각자가 C군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토론해 봅시다.
- (2) A양이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술자리에서 즉시 행위자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니면 위의 상황처럼 추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토론해 봅시다.
- (3) B군의 입장에서는 A양의 항의 및 사과요구에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토론해 봅시다.

[Case Simulation2]

A가 듣는 강의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다. 어느 날 강의와 관련하여 슬라이드 자료를 보다가 수업을 진행하던 B교수께서 "저 여자 웬애 죽이네", "저런 여자랑 데이트 한번 해보면 소원이 없겠죠?", "여기 수업듣는 여학생들도 공부만 하지 말고 좀 가꿔요. 여자는 모름지기 미모야 미모!" 등의 말을 했고, 그 때마다 강의실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A는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 수업중에 하신 지나친 농담이 불쾌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데 B교수님은 "난 학생들이 수업듣는데 지루할 것 같아서 농담을 좀 한 것뿐이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다 좋아하면서 웃던데, 학생만 문제로 느끼는 건 과민 반응이 아니냐?" 고 되묻는 답장을 보냈다.

- (1) 당신이 A라면 B교수님께 A처럼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겠는가?
- (2) 만일 A의 행동처럼 이메일을 보낸다면 실명으로 보내겠는가? 익명으로 보내겠는가?
- (3) A의 행동과 B교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해 봅시다.

8. 사이버 성폭력

[Case Simulation]

A군은 어젯밤 우리학교 학생들의 정보공유사이트에 들어가서 게시판의 글들을 읽다가 우연히 자신의 여자친구인 B양(교내커플)의 옆모습 얼굴과 치마입은 허벅지 사진이 몰래카메라로 촬영되어 익명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심한 불쾌감과 사진을 올린 행위자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감정을 느꼈다.

- (1) 피해자(B양)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3자(A군)의 입장에서 위 상황의 사이버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는 지 토론해 봅시다.

자기표현력 Checklist

	1. 항상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가끔 그렇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1. 남들이 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를 농담거리로 삼거나,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	1	2	3	4 5
3. 사람들이 나를 공격적인 사람으로 볼까봐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주저한다.	1	2	3	4 5
4. 사람들이 내가 그들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1	2	3	4 5
5. 내 말이 마치 질문하는 것처럼 들린다.	1	2	3	4 5
6.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바닥을 쳐다보거나 팔짱을 끼는 편이다.	1	2	3	4 5
7. 말을 꺼낼 때 '어쩌면 틀릴지 모르지만', '바보 같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1	2	3	4 5
8.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말이 너무 많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편이다.	1	2	3	4 5
9. 칭찬을 들으면 감사보다는 무시(예: 저 잘 못해요.. 필요)하는 편이다.	1	2	3	4 5
10.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다고 하거나 다른 비난을 할까봐 웬만해서는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다.	1	2	3	4 5
11.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입을 꼭 다무는 편이다.	1	2	3	4 5
12. 내가 부탁을 거절할라 치면 사람들은 꼭 내게 죄책감이 들게 한다.	1	2	3	4 5
13.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때면 변명을 해야 할 것 같다.	1	2	3	4 5
14. 부탁을 거절할 때 정당한 사유를 짧게 밝히기보다는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편이다.	1	2	3	4 5
15. 상대방의 요구를 저절하고 싶어도 받아들이는 편이다.	1	2	3	4 5
16.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4 5
17. 나중에 후회할 약속을 한다.	1	2	3	4 5
18. 결정을 내릴 때 서둘러야 한다고 나 자신을 재촉한다.	1	2	3	4 5
19. 할 말을 조심스럽게 고르기보다는 충동적으로 대답하는 편이다.	1	2	3	4 5
20. 내가 결정한 사항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21. 내가 원하거나 기대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냥 받아들인다.	1	2	3	4 5
22.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가만히 있는 편이다.	1	2	3	4 5
23.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한다.	1	2	3	4 5
24.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편이다.	1	2	3	4 5

25.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꺼려질 때 친구나 가족에게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1 2 3 4 5
26. 어떤 의견을 말할 때 '남자친구(아버지, 남편)이 그러는데' 라든가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내 말에 일응이 더 실린다고 느낀다. 1 2 3 4 5
27. 했어야 할 말을 하지 못했더 자식을 탓한다. 1 2 3 4 5
28. 부당한 비판을 받았을 때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편이다. 1 2 3 4 5
29. 무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정타를 날릴 만한 재치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1 2 3 4 5
30. 부당하게 비판을 받거나 모욕을 당해도 가만히 견디는 편이다. 1 2 3 4 5
31. 내가 이론 성과를 내공으로 돌리는 것이 거북스럽다. 1 2 3 4 5
32. 학교(회사)에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꺼려진다. 1 2 3 4 5
33. 선배(상사)가 부당하거나 불편한 요구를 해도 딱 잘라 거절하지 못한다. 1 2 3 4 5
34. 어색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잃고 하려던 말을 하지 못한다. 1 2 3 4 5
35. 다가올 일이나 상황 때문에 초조해질 때,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내 능력이 의심스럽다. 1 2 3 4 5

[출처 : 폴렛 데일, 대화의 기술, 푸른숲출판사, 2004. 일부수정]

성적 의사결정능력 Checklist

성적 의사결정능력 지수	자주	보통	드물게
1. 남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고 쉽게 받아들인다	3	2	1
2.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 어렵다	3	2	1
3.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않는다	1	2	3
4.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가 더 많다	3	2	1
5. 교제중인 친밀한 이성이 있는 경우 자신의 일을 상대방과 상의하고 알리지 않으면 불안하다	3	2	1
6. 교제중인 친밀한 이성이 있는 경우라도 자신의 일은 자기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결정한다.	3	2	1
7. 상대의 제안이나 표현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되묻는다.	1	2	3
8. 나의 성지식이나 성욕구를 상대에게 솔직하게 말한다	1	2	3
9. 나는 호감을 갖는 상대와 만날 때 나의 (성적) 행동범위 한계를 미리 정하고 만난다	1	2	3
10. 내가 원하는 언행일지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요구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을 존중한다	1	2	3
11.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하려고 하면 단호하게 '싫다'고 말한다	1	2	3
12. 성관계를 갖기로 상호동의한 경우는 상대에게 피임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1	2	3
13. 나는 나에게 맞는 피임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1	2	3
14. 상대방과 여행을 가거나 집에 놀러 가게 될 경우에는 성관계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겠다	1	2	3
15. 나의 의사에 반하는 상대의 일방적 요구가 있는 경우는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말하고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	1	2	3

<점수합계> 1- 15점 : 초록신호 -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잘 지킬 줄 알며, 상대에게 자신의 솔직한 의사표현을 잘 하고 계십니다.

16-35점 : 노란신호 -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다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36-45점 : 빨간 신호 - 당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위험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표현력 훈련

1.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내가 상대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달려있다.

=> 스스로 만만한 먹이감처럼 행동하면(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표적이 된다.

1)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

- 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 상대방의 반응은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
- ② 자신감은 새로운 자신감을 부른다.
- ③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적합한 방법으로 출발하라.
- ④ 자신 평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 ⑤ 상대방에게 달아나지 마라.

2)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태도

- ① 사소한 것에 주의하라.
- ②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라.
- ③ 상대방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 ④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라.
- ⑤ 상대방에게 뽑내지 마라.
- ⑥ 상대방의 능력을 키워줘라.
- ⑦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 ⑧ 서두르지 말라
- ⑨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2. 상대방이 감히 괴롭힐 수 없는 단호한 사람 되기.

=> 수동적인 반응 : "나는 아무래도 좋아, 중요한 건 바로 당신"

소심한 반응 : "나는 어느정도 중요해, 하지만 내판단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어"

공격적인 반응 : "당신은 아무래도 좋아, 중요한 건 바로 나"

단호한 반응 : "나도 중요하고 당신도 중요해. 우리 모두 중요하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는

3. 나의 감정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고 표현하면서 내 의견을 정중하게 표현하기.

=>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며, 자기 의견을 감추지 말고 자기주장을 한다.

"I" message : 당신이 틀렸어요 vs 나는 당신과 의견이 다릅니다

4. 오해라는 복병 피하기 : 되묻기로 대응(말의 의미를 분명히 설명해줄 것을 요청)

=> 대화에서 빚어지는 오해는 청자가 화자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그 말뜻을 미리 짐작(무시, 거부)하기 때문에 생긴다.

5. 말을 꺼내기 전에 상대방에게 자신감있는 태도 취하기

=> "내가 널 존중하지 않으니, 당신도 그럴 필요없어요" 라는 태도

"나는 존중받고 싶어요. 그럴 가치가 있어요. 난 당신과 동등해요" 라는 태도

상대방의 눈/얼굴전체/코/이마/턱을 순서적으로 쳐다보기

자신의 말을 부인하는 용어피하기(예: 잘 모르지만..., 귀찮게해서 죄송한데요...)

아이디어를 죽이는 표현금하기(예: 확신은 못하지만.. 자신은 없지만 해볼게요)

6. 이야기 도중 말을 멈추고 침묵 지키기

=> 이야기가 끝날 때 불필요한 말들로 통새 메우려 하지 말자

7.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난(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기.

=>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참아야지" : 한계선 분명히 긋으면 상대의 행동이 바뀐다

의사표현 빨리하면 할수록 자신감도 커진다

무조건 피하기보다 관계개선의 기회를 만들자

"너, 너무 예민해, 농담이었는데 오버하지마"

: 행위자의 행동 정당화하기 / 피해자의 악점잡아 비난하기

모욕과 농담의 차이 드러내기

어떤 말로 반격하든 똑같은 반응보이기(녹음기 전략)

8. 거부하는 감정, 사람은 즉각적으로 정리하기(코드뽑기 전략)

=> 마치 전기코드를 뺀 것처럼 그들과 선이 끊겼다고 상상하고, 상대방과 연결된 감정을 지워버리자, 상대를 나의 인생에서 내보내고 절대로 뒤돌아보아서는 안된다.

9. 단호하게 거절하기

=> "아니오"부터 시작하라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위트있게 거절하기 : 변명하지 않기

대답하지 않을 권리(privacy)와 거절할 권리는 나에게 있다.

10. 논치보지 않고 나를 주장하기

=> 어떤 결정을 내리기전 생각해볼 시간을 가져라.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판단하기

강요받지 않기

늦게라도 할말을 하자

11. 요구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기 : 나를 위한 최선의 대안찾기

=> 상대방의 대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한다.

자신의 요구를 정당화한다.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 생길 긍정적인 결과를 말한다.

자신의 요구가 거부될 때 일어날 부정적인 결과를 말한다.

자기주장 훈련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른다구요?

상대방에게 거절 당할까봐 두려워서 이야기를 꺼내지 못 하겠다구요?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고 싶은데 그러면 상대방이 혹시 상처받거나 나와 멀어질까봐 두렵다구요?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사람들과 부딪히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대인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의사소통일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언어로, 또 말만으로 부족하여 표정과 제스처를 사용하거나 온 몸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좀 가려서 표현하는게 좋을지, 상대방의 반응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고민에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불분명한 의사소통은 대인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혼란스러움만 주고 오해를 일으키며 서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이 상대방에게 소신있게 있는 그대로 전달될 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1) 자기주장적 행동이란

- '아니오'와 '예'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 남에게 요청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능력
- 마음의 문을 열고 직접적으로 감정과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
- 사람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지킬 수 있는 능력
- 다이어트나 나쁜 습관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2) 자기주장적 행동 vs 공격적 행동

1. 주장적 행동은 자신의 욕구, 권리의 표현이나

공격적 행동은 타인을 희생하여 욕구, 권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2. 주장적 행동은 정서적으로 정직하고 직접적인 표현이나

공격적 행동은 정서적으로 정직하나 누군가를 희생하도록 표현하는 것이다.

3. 주장적 행동은 인간적 권리를 유지하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격적 행동은 부적절한 과잉반응 및 타인을 열시하거나 창피를 준다.

4. 주장적 행동을 하면 자신에게 좋은 감정과 확신감을 준다.

공격적 행동은 분노감정이나 나중에 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5. 주장적 행동은 타인에게 존경심을 일으키나

공격적 행동은 분노, 원한, 복수심을 불러일으킨다.

6. 주장적 행동의 결과 자신이 바라는 목표를 소신있게 성취하나

공격적 행동은 타인을 희생하여 목표를 성취한다.

(3) 주장적 행동의 연습

1. 공감적인 자기주장법

첫째,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했다는 자세를 보여준다.

둘째,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한다.

셋째,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말한다.

예) 그래, 네가 지금 같이 영화 볼 친구를 찾고 있구나.

나도 가고 싶지만 오늘까지 끝내야 할 일이 있어서

함께 못 가겠다.

2. 부정적인 감정을 주장하는 방법

첫째, 불쾌정서를 유발시키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일을 명확히 밝힌다.

둘째,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적한다.

셋째, 그것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넷째,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한다.

예) 너는 술을 마실 때 성적 농담(혹은 스킨십)을 하곤 하는데

이런 행동은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으로

그때 마다 난 몹시 불쾌해지니

이런 행동을 삼가고, 난 너의 이런 행동에 대해 사과받았으면 좋겠어.

3. '아니오'라고 말하는 몇 가지 요령

첫째, 상대방의 요구가 합리적인지 검토해 보라. 주저되거나 방어적이 되면 그것은 거절하고 싶은 징조이다.

둘째, 판단하기 위한 정보나 해명을 좀 더 요구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셋째, 단순히 '아니오'라고 하자. 구차한 변명은 필요없다. 직접적인 '아니오'가 가장 소신있는 자세다.

넷째,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별하여 리스트를 만들고, 친구나 가족에게 그런 경우나 상대역할을 하도록 하여 그 앞에서 "아니오"라고 하는 연습을 해보자

(4) 주장적인 행동을 할 때 주의사항

1. 주장적인 행동은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한다.

2. 주장적인 행동이 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먼저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3. 지금까지 비주장적으로 행동한 뒤에 갑자기 주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4.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이상하게 보일지 모른다. 인내심을 가지고 행동하면 차차 쉽고 자연스럽게 된다.

5. 주장적 행동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설령 구체적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노력해 보았다는 자체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6. 당신이 불안을 느낄수록 주장적으로 행동하는데 곤란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낮은 불안을 일으키는 반응부터 시작한다.

7. 주장적 행동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도 인식하라.
8. 당신이 주장적으로 공격적으로 혹은 비주장적으로 됨으로써 얻은 대가가 무엇인가 예상해 보아라. 시간소모, 정력소모, 그 결과의 면에 과연 어떤 행동이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보라.
9.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
그 다음은 반복적인 연습이다.
10. 주장적인 행동에는 타인에 대한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된다.

(5) 요청하는 방법

1. 원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다.

예) --- 해도 좋을 까요? --- 하시겠습니까?

내가 --- 하고 싶은데 우리 같이 --- 해볼 마음이 있는지요?

2. 상대방이 거절할 때, 그 거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3. 상대방의 대답을 그의 성실성으로 간주하고 존중해 준다.
4. 상대방의 대답에 대해 당신의 태도(감사, 실망, 수용)를 표현한다.
5. 상대방이 거절한다고 해서 당신을 전체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6) 거절하는 요령

1. 가부를 확실히 밝힌다. 만일 가부를 밝히기 어려울 때는 생각할 시간을 가진 후, 솔직하려고 노력한다.

예) 그게 좀 불가능한데요. / 안 된다고 말해야겠군요.

2. 대답은 간단히 하고 변명을 길게 늘어놓지 않는다.(변명이 필요할 때는 짧게!)
3. "미안하다"는 말은 꼭 그렇게 느낄 때만 쓴다.
4. 상대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나역시 대화를 끝마칠 권리가 있다.
5. 일단 가부를 밝혔어도,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다.
6. 조용한 목소리로 몸짓으로 말한다.
7.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예컨대 "다른 기회에 만나도록 할까요?"

성존중 지수 self-checklist

문항	'성존중 지수' 문항	동의 여부
1.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남자들이 터프하고 박력있게 하는 신체 접촉을 여자들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3.	성관계에서 여자가 적극적이면 해롭다 여자로 생각된다.	
4.	남녀관계에서 '열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생각한다.	
5.	성적인 접촉을 하기 전에, 상대(배우자포함)에게 상호간의 협의를 직접 물어보는 것은 창피하고, 무드를 깨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6.	나의 연행에 상대가 확실하게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성폭력 피해 중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8.	여자와 남자는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서, 이성간의 의사소통은 원지 어색하고 불편하다.	
9.	대인(이성, 동성)관계에서 화가 나거나 괴로울 때, 불편한 감정을 정중히 말로 상대에게 표현하기 힘들다.	
10.	대인(이성, 동성)관계에서 내가 상대를 존경하기보다는 나를 존경해주는 상대가 훨씬 편하다.	

<해석> 0-1점 : 초록신호 / 2-4점 : 노란 신호 / 5-10점 : 빨간 신호

0-1점 : 초록신호 - 당신의 성존중 의식은 아주 건강합니다. 앞으로도 상대를 더욱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2-4점 : 노란 신호 - 당신의 성존중 의식은 건강한 편이나, 상대를 지금보다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는 노력은 더욱 아릅답아 보일 것입니다.

5-10점 : 빨간 신호 - 당신의 성존중 의식은 적색 신호입니다. 보다 양성평등적인 사고와 자신이 소중한 만큼 상대도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서로가 행복할 것입니다.

성희롱 잠재지수 Checklist

'성희롱 잠재지수' 문항	동의 여부
1. 동료(선후배)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성적 농담, 음담패설, 가벼운 신체 접촉은 서로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든다.	
2. 성적 경험을 자랑처럼 늘어놓는 동료의 말을 듣고 문제임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다.	
3. 동료(선후배)가 성희롱 피해를 호소해 올 때 '별일 아닌 데 참지 그래!' 식의 말을 한 적이 있다.	
4. 컵홀더 등의 술자리에서 동의를 구하거나 물어보지 않고, 이끌어내어 춤을 추거나, 기쁨조 역할을 요구한 적이 있다.	
5. 컵홀더 등의 술자리에서 상대가 싫다는데도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술따르기를 요구한 적이 있다.	
6. 상대의 동의를 구하거나 물어보지 않고 친밀감의 표현으로 스킨십을 한 적이 있다.	
7. 주변인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로 성적 표현물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다.	
8. 학업(업무)과 관련하여 특정 성을 지칭하여 표현하거나 특정 성을 배제한 채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다.	
9. 성희롱 문제가 거론될 때, 남성들이 잠재적 가해자로 여겨져 불쾌하다.	
10. 성희롱의 피해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성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여성들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유연성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해석> 0점 : 초록신호 / 1-4점 : 노란 신호 / 5-10점 : 빨간 신호

0점 : 초록신호 - 당신은 자신을 성희롱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군요.

1-4점 : 노란 신호 - 잘 하고 계시지만, 성희롱의 가해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십시오.

5-10점 : 빨간 신호 - 위험합니다.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으시군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십시오.